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082호 1판 (음력 8월 5일) 2019년 9월 3일 화요일

"딸 장학금·논문 관여 없어 법적 논란 떠나 국민께 죄송"

조국 법무장관 후보 기자간담회

사모펀드 구성·운영 전혀 몰라 되돌릴수 없는 개혁 완수 할 것 딸 입시 과정 혜택 누렸다고 생각 임명 여부 떠나 장학금 등 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향해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과분한 기대를 받았는데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딸 논문이나 사모펀드 투자 등과관련한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없다고 모두 부인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 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철저하지 못 했다"며 "젊은 세대에 실망과 상처를 줬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과 국민들께 죄송 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은 것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 자로서, 민정수석의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 법무부 장관 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는 서슬 퍼런 일을 감당 해야 한다"며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라 고 밝혔다. 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 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감히 그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에게 요구 한다.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해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주식을 보 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펀 드에 투자하면 되겠냐고 공식적인 질문을 했고, 펀드투자가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저는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 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 고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 다. 2017년 7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두 자녀와 함께 블루펀드에 74억5500 만 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실제 투자했다.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 씨도 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 쿼티(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 주주가

자신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 "저희는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딸이 단국대에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딸 아이가 제1저자로 돼 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하게 됐다"며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단국대 교수

1,249,000원~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수 3박4일, 토 4박5일

#천하제일명산 #5성호텔

549,000원~

#운곡케이블카 #서호유람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수 3박4일, 토 4박5일

와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인턴십과 관련해) 교수님에게 연락을 드린 적이 없 다. 논문도 저나 가족 어느 누구도 교수님 에게 연락드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 "저의 아이 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며 "임명 여 부를 떠나 제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 제 아 이가 받았던 장학금을 다 정리해서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본다" 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가 균형발전 시대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늘 광주전남연구원서 미래발전전략 토론회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3일 오후 광주 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개원 4주 년, 건원 28주년을 기념해 광주전남연구 원과 광주일보가 공동주최·주관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일 "광주·전남이 협력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3일 오후 미래발전전략토론회를 개최한 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재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발전 비전과 전략'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이 돼 김익주 광주신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 혜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장,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고광 완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나주몽 전남대 교수, 문정은 광주청년센터 the 숲 대 표,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 구위원, 이두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장 필수 광주일보 편집부국장(전남본부 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 을 벌인다.

박성수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앞두고, 나아가야할 장기적인 방향과 그에 따라 각 분야별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으로 부상해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화

내년 국비예산 1090억 확보 올보다 35% 늘어 역대 최대 5대 문화권 사업 신규 반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1000억 원대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사업이 2020년 정부 예산에서 109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805억원보다 285억원 (35.4%)이 증가한 규모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이후 2016년 768억원, 2017년 716억원, 2018년 718억원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중 신규사업은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27억원)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사업(12억원) ▲5G 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25억원) ▲문화전당 주변 도로(광산길) 확장 사업(134억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127억원)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94억원)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18억원) ▲민주평화교류원기념관복원(4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핵 심사업인 광주 5대 문화권 사업의 일부가



광주 남구 구동에 들어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감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 답 보상태에 있었던 지자체 사업의 추진 동 력이 마련됐다.

국가 직접 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 부문에 대한 국비 예산은 지금까지 1조1595원이 투입돼 총사업비 1조3872억원 대비투입예산 비율이 83.6%에 달한다. 하지만광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환경조성등 지자체 사업은 올해 기준 국비 지원예산이 1915억 원으로 총사업비 1조3807억원대비 13.9%로 저조한 실정이다.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앞 으로 5대 문화권 사업 등 지자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

490,000원~

#오감만족 여행 #식도락

주 4~7회 운항 *일자별상이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겠다"며 "문 화전당의 콘텐츠 개발·운영 등 사업에도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안심결제 캠페인 |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40~, 선택경비 있음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수/목 3박5일, 토/일 4박6일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589,000원~

#아일랜드투어 #반딧불이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999,000원~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수 3박4일, 토 4박5일

#천년의신비 #양크로왓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로, 공항이용로, 전쟁보험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로, 현지관광입장로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주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자]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인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황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로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1,069,000원~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포함 선택경비 있음

수 3박4일, 토 4박5일